

자기상과 우울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 성 열 · 최 일 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Lewicki(1983)가 제안한 자기상 편파(self-image bias) 효과에 개인차 변인으로서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먼저 피험자에게 BDI척도를 실시하여 각 개인의 우울수준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뒤이어 14명의 자극 대상인물을 17개의 특성 차원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에 근거하여 각 개인마다 특정 특성차원의 긍정성과 중심성을 측정하여 이들간의 관계의 모양과 상관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자기자신의 긍정성은 평가지에 있는 '자기자신' 항목의 평가에 근거해서 측정되었고 특성차원의 중심성은 한 특성 차원과 나머지 16개의 각 특성간에 r^2 을 합산함으로써 한 특성차원이 나머지 특성차원을 설명해 주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실험결과는 우울집단에 속하는 각 개인들은 특성차원의 중심성과 긍정성간에는 부적상관을, 비우울 집단에서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Lewicki가 제안한 자아상 편파 효과가 사람들의 우울여부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차원이 타인을 지각할 때도 중요한 특성차원으로 보는 현상은 Lewicki가 제안한 인지적 설명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wicki가 자아상편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인지적 설명모형을 더욱 확증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회적 세계를 형성하는 타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이 상호작용 속에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타인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바로 대인지각 단계이다. 이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는 사회심리학의 핵심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이전에 사회인지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고전적 문제영역과 그 이후의 사회인지 영역의 연구로 크게 나누어진다(Fiske & Taylor, 1982). 고전적 문제영역은 대체로 Heider 이전의 연구 내용과 Heider(1958)의 고전적인 저술인 '대인관계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문제는 첫째, 정서 재인과 대인지각의 정확성 문제 둘째, 인상형성과 내현성격 이론의 문제 셋째, 대인지각의 자극단서의 문제 그리고 넷째로, 귀인과과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고전적 문제 영역에서 가정한 수동적 지각자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처리하는 능동적 정보처리자의 관점을 취하는 사회인지의 연구분야가 등장하였다.

인상형성의 문제

인상형성의 문제는 주로 타인에 대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접근과 Anderson(1965)의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대립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sch의 형태주의적

접근에서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인상을 형성할 때 타인의 여러 성격특성들을 전체적인 통합성 속에서 지각한다고 가정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인상형성에 관한 고전적인 실험에서 입증하였다. Asch는 한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어떤 가상적 인물의 성격특성으로서 '지적인-재주있는-부지런한-따뜻한-결단력있는-실제적인-신중함'의 특성목록을 제시하고, 나머지 다른 집단의 피험자에게는 '따뜻한(warm)'을 '차가운(cold)'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상기의 목록과 동일하게 한 특성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그는 피험자들에게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인상을 간략히 기술케 하였고 또한 가상의 인물을 판단-판대하지 않은, 강한-약한 등의 18개의 특성차원으로 구성된 의미 변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결과는 두 집단간에 상이한 인상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즉, '따뜻한'조건에 있던 피험자는 '차가운'조건에 있던 피험자보다 자극인물을 더 좋은 사람으로 기술하였고, 또한 의미변별척도에서도 그를 더 좋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따뜻한-차가운' 특성차원을 '예의 바른(polite)-무뚝뚝한(blunt)' 차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특성차원은 동일하게 한 실험절차에서는 두 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Asch는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여러 성격특성 중 어떤 것은 그것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중심적(central)이 되거나 주변적(peripheral)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상형성은 여러 성격특성중 어떤 것이(예를 들면, 따뜻한-차가운) 중심특성(central trait)으로 부각되고, 그의 특성들은 주변특성들로서 이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대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Kelly(1950)는 Asch가 인상형성 단서로 실제 인물이 아니라 언어적 자극을 실험단서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실제 사람을 자극인물로 사용하여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실험에서는 실제 자극인물을 교실에 데려와서 그가 토론을 주관할 초빙강사라고 하였다. 각 학급의 학생 빈수에게는 그 강사가 교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따뜻한'사람이라는 사전 정보를, 나머지 빈수에게는 그가 '차가운'사람이라는 사전 정보를 주었다. 토론이 끝난 직후 피험자들에게 그 강사에게 받은 인상을 간략히 적게하고, 또 인상을 의미변별척도에 평정케 하였다. 실험결과는 Asch의 실험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이었다. 즉, 따뜻한 조건의 피험자는 차가운 조건의 피험자보다 자극인물인 강사를 더 좋게 평가하였고 또한 그에게 더 많은 말을 걸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들은 모두 인상형성은 핵심적인 어떤 중심특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조직화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행동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인상형성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주어지는 낱개의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척도치(scale value)들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최종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척도치란 각 개별적인 특성들이 갖고있는 평가적인 정적-부적인 정도이다. 이 접근에서는 각각의 특성들이 갖고있는 평가적 척도치는 항상 일정하며, 이것이 평균모형(averaging model, Anderson, 1965) 또는 누가 모형(additive model, Triandis & Fishbein, 1963)에 의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상형성에 관한 형태주의적 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은 제시되는 자극정보들의 관계에 대한 입장, 자극정보들의 의미기에 대한 입장, 인상통합의 과정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다름으로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1970년대 초까지 전개되어 왔다.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형태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결과들로 인정되어온 중심특성-주변특성의 문제, 배경효과의 문제, 초두효과의 문제들도 중심특성에 대한 가중치의 상향조정, 배경 정보에 대한 가중치의 배려, 나중에 제시되는 정보의 가중치의 절감등을 통해 가중 평균모형(Anderson, 1965)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논쟁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의 대립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즉, Asch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로 다룬 반면, Anderson은 그에 대해 평가적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Asch는 인상형성을 구성하는 여러 개별특성들이 맥락에 따라 의미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일관된 인상형성을 구성하게 되는가 하는 인상형성의 과정에 관심을 두었고 반면에, Anderson은 인상형성의 과정보다 개별 특성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적 결과(좋다-나쁘다)를 산출하는가 하는 결과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인상형성의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주요 연구관심은 인상형성의 과정

이나 결과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지각 경향성의 탐구였다. 즉 Asch가 발견한 중심 특성으로서 '따뜻한-차가운' 차원은 특정 문화권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인지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중심특성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개인마다 대인지각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 중심특성을 갖고있다(Lewicki, 1983).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마다 타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성이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특성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흔히 경험하게된다. 과거의 경험, 언어, 현재의 동기상태, 의미 추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은 우리의 현재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지각에 있어 개인차를 야기한다(Fiske & Taylor, 1984; Nisbett & Ross, 1980). 이러한 개인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지각자는 첫째,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는가 하는 점에서 둘째, 그들이 주목한 것을 범주화하는 방식에서 셋째, 범주화된 대상에서 이끌어낸 추론 등에서 개인차가 있다(John Goldein, 1975; Dornbusch et al, 1965; Duncan, 1976). 그렇다면 대인지각에 있어 개인의 주의가 집중되며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특성 차원은 무엇이며 무엇이 이러한 특성차원을 형성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Lewicki의 자기상편파(self-image bias) 가설

Lewicki(1983)는 자기(self)는 좋은 자기상(self-image)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Markus, 1980),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중 긍정적인 측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기존연구(Shrauger & Patterson, 1974)에 근거하여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자기측면은 타인을 지각할 때도 중요한 특성 차원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자기상 편파(self-image bias)' 가설을 제시하였다. Lewicki는 사람들은 자기상(self-image)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대인지각에서 차이를 유발시킬것 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실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지각에 있어서 특성차원의 중심성의 차이는 지각자의 자기상과 연관되어 있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자기측면은 타인을 지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쉬울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이것을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가설로 제시하였다. "어떤 성격차원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대인지각에 있어서의 중심성은 증대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상 편파'현상으로 명명하면서 어떤 특성 차원의 긍정성과 그것의 대인지각에 있어서의 중심성 간에는 대략적으로 직선적 함수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기상 편파 현상을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고양하거나 좋은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방어기제와, 자기-관련된 평가적 정보를 특성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로 전환시키는 인지적 기제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자기상 편파 현상을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고 부정적 측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자기존중감을 유지, 고양하려는 방어기제가 대인지각 과정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인지적 기제에 의해서도 설명가능하다. 이 대안적 설명은 사람들이 정적 평가를 받았을때 중성적 평가를 받았을 때보다 더 강한 자기상 편파 현상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여기서 자기상은 외적 평가적 자극과 차원의 중심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자신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특성차원이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는 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진지하지만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으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는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진지함에 근거하고 따라서 진지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성임에 반해 냉정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한가지 문제점은 긍정성과 중심성의 관계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적인 직선적 관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Lewicki는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받는 많은 사회적 자극들은 그들에 의해 대체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사회적 자극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단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추론을 낳아 자신의 긍정적 특성 측면과 그것의 대인지각에서의 중심성간에는 대략적인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상 편파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인지적 설명이 제시됨으로서 방어기제는 직접적으로 자기상 편파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자기와 관

련된 평가적 정보를 부호화(encoding)하거나 회상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Lewicki는 개인이 타인을 지각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주목하는 특성차원을 형성시키는 한 원천으로서 자기상(self-image)에 의한 편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Asch의 중심특성의 개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개인적 중심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Asch는 대인지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중심특성을 밝혀내는데 반해, Lewicki는 자신의 긍정적 특성차원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마다 차이를 갖는 개인적 중심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도식(self-schema)을 갖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우울한 사람들은 어떠한 지각 경향성을 보일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울한 사람들의 지각적, 인지적 특징

Beck(1967)는 우울에 관한 인지이론에서 우울한 개인의 자기도식(self-schema)은 부정적이고, 주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울한 사람의 이러한 부정도식은 미래경험의 지각과 구조화에 영향을 주어 선택적으로 정적 정보를 배제하고 부정 정보를 과장하는 지각 편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우울한 사람이 현실을 해석할 때 범하는 몇가지 편파적 오류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인위적 추론, 주어진 상황하의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단지 한 요인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선택적 요약, 그리고 단 하나의 사소한 사건을 토대로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잉일반화가 있다. Beck는 우울증의 정서적 및 행동적 특징을 이러한 인지 과정의 편파적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이 갖는 환경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나 자신의 현실보다는 그에 관한 개인의 구성개념(construct)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인지과정에서의 왜곡으로 우울을 설명하는 견해는 Rehm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Rehm(1977)은 부정적인 자기탐지, 지나치게 높은 기준설정, 부정적인 자기평가, 불충분한 자기강화, 과도한 자기처벌 등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울한 사람의 왜곡된 자기관이 그들의 실제능력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ehm은 피험자들에

게 무의미 철자의 재인 과제를 부과한 후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를 탐지하게 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보상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울 집단에서는 자기평가나 자기보상이 그들의 실제 수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한 사람에 있어서 자기보상, 자기처벌과 정적-부적 정보의 회상간의 관계를 비교한 Gotlib(1981)의 연구에서도 그들의 왜곡 경향이 관찰되었다. Gotlib은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집단, 임상 통제집단에게 언어재인 과제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반응이 정당이라고 생각되면 보상(self-reward)을, 오답이라고 생각되면 처벌(self-punishment)을 가하도록 했다. 그 후 자신들의 보상이나 처벌 등을 평가하도록했을 때, 우울증 집단은 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제보다 보상은 더 적었고 처벌은 더 많았다고 회상하였다. 그리고 Dery와 Kuiper(1981)는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각각에게 구조적, 의미적, 자기참조적 과제의 세 조건에서 긍정적, 부정적 형용사를 평정케 한 다음, 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우울집단은 자기참조 조건에서 부정적 형용사를, 비우울집단에서는 자기참조 조건에서 긍정적 형용사를 가장 잘 회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의 자기도식(self-schema)은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자기 도식에 의해 처리되는 내용에 있어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엄격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자기관을 갖는다는 Rehm과 Beck 등의 주장은 실행과제의 수행과 그에 대한 회상, 평가, 강화 그리고 강화의 회상 등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Campbell & Fehr, 1990; Dery & Kuiper, 1981; Gotlib, 1981; Kuiper, 1978; Lobitz & Post, 1979; Rehm, 1977; Wener & Rehm, 1975).

그러나 우울을 이처럼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지각하는 인지적 기제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환경적 피드백의 사실적 지각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적지 않다(Lewinson, 1974; Lewinson & Hoberman, 1982; Liber & Lewinson, 1973). 사회적 행동 그 자체와 그에 대한 강화유형에 강조점을 두고 우울증을 설명하는 행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

드백이 주어지고 긍정적 강화가 결여되므로, 그 결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자기지각을 연구한 Lewinson 등은 우울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함을 발견했다. 그는 우울집단과 임상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을 실험실 내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상호작용을 가지도록 한 후 그들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자기 평가)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관찰자로 하여금 일방거울을 통해 그들의 상호작용 장면을 지켜보게한 후 평가(관찰자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우울집단의 자기평가는 두 통제집단의 자기평가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관찰자 평가와는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두 통제집단의 자기평가는 그들에 대한 관찰자 평가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었다. 즉 우울집단의 자기평가는 부정적이었지만 상당히 객관적이었던 반면에 두 통제집단의 자기평가는 비객관적이고 과대 평가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반면에, 오히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해서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인 부정적 자기인식을 인지적 수준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구성하기 때문으로 보든지(Campbell & Fehr, 1990; Dery & Kuiper, 1981; Gotlib, 1981; Kuiper, 1978; Lobitz & Post, 1979; Rehm, 1977; Wener & Rehm, 1975), 아니면 부정적 현실을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으로 보든지(Lewinson, 1974; Lewinson & Hoberman, 1982; Liber & Lewinson, 1973)간에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여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대인지각에 있어서 중심적 차원이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에 Lewicki가 제안한 자기상 편파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즉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어떤 특성차원이 긍정적일수록 그차원의 중심성은 증대되어 이들 긍정성과 중심성간에는 정적 상관관을 보일 것이고,

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특성차원들이 부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중심성은 증대되어 긍정성과 중심성간에는 부적인 상관관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Lewicki가 고려하지 않았던 개인차 변인 즉, 우울이 그가 제안한 자기상 편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가설 1. 비우울집단에서는 어떤 성격차원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대인지각에 있어서의 중심성은 증대될 것이다.

가설 2. 우울집단에서는 어떤 성격차원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대인지각에 있어서의 중심성은 증대될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참가자

특성차원 목록을 만들기 위한 예비조사에서는 140명의 남녀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본 연구에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개론 수강자 중 연구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남녀 132명이 참여하였다.

도구

1) 우울 문항지

피험자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8)가 1978년에 개정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김명권(198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명권의 연구에 따르면 BDI의 반분 신뢰도는 .71이었고 Spearman-Brown의 교정을 통해 .71의 상관관을 얻었다고 한다. BDI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 있을 수 있다. Beck에 의하면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태, 그리고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우울집단으로 0-9점까지를, 15점 이상을 우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특성차원 목록

특성차원 목록을 만들기 위해 140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각 5명씩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Kelly, 1955)을 제시한 다음, 이들을 주로 성격특성의

차원에서 자유기술케 하였다. 여기서 Kelly가 제시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이라 20명으로 1. 자기 자신, 2. 어머니, 3. 아버지, 4. 형제자매, 5. 가까운 선생님 혹은 교수, 6. 내가 아는 어떤 겁많은 사람, 7.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8. 내가 아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9. 내 친구 중 한명, 10. 내가 아는 어떤 공격적인 사람, 11. 내가 존경하는 사람, 12. 내가 아는 어떤 특이한 사람, 13. 이상적 자기, 14. 내가 아는 어떤 평범한 사람, 15. 가장 친한 친구, 16. 내가 잘 모르는 반 친구, 17.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8.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19.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 20. 이상 친구를 말한다. 특성차원 목록을 만들기 위해 이들 중 5명에 대해 자유기술케 한 평가지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특성차원의 순서로 17개의 특성차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차원은 6점 척도로 구성되게 하였다.

3) 평가대상 인물

평가대상 인물은 Kelly(1955)의 연구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을 대표하는 20명중 평가에서 사용되는 특성차원간 상관이 높은 6명을 제외하여 14명을 평가대상 인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대상인물은 다음과 같다.

1. 자기 자신
2. 어머니(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역할을 해 준 사람)
3. 아버지(없는 경우에는 아버지 역할을 해 준 사람)
4. 형제 자매 중 한명
5. 가까운 선생님 혹은 교수
6. 내가 아는 어떤 겁많은 사람
7. 내가 가장 싫어하는(했던) 사람
8. 내가 아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9. 내 친구 중 한명
10. 내가 아는 어떤 공격적인 사람
11. 내가 존경하는 사람
12. 내가 아는 어떤 특이한 사람
13. 이상적 자기(되고싶은 나)
14. 내가 아는 어떤 평범한 사람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였을 때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미리 칠판에 써 둔 실험 절차에 관한 지시문을 읽도록 하였다. 약 15명의 약속된 연구 참가자가 모두 도

착했을 때 실험 시작을 알려주고 칠판에 써 둔 평가 지시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BDI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평가에 들어가기 앞서 참가자들에게 평가는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는 것임을 강조하여 평가시 작용할 수도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효과를 줄이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14명의 평가 대상 인물을 17개의 특성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 시행은 약 15명을 한 집단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소요 시간은 약 70분 정도였다.

측정

1) 자기평가의 긍정성

자기평가의 긍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6점 척도로 구성된 평가지에 있는 각 특성차원은 언제나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변형되었다. 이 변형을 한 후에 각 차원의 긍정성은 '자기 자신' 항목에서 각 차원의 6점 척도상의 점수로 나타내진다. 즉 각 차원에서 점수가 클수록 그 차원은 긍정적인 것이 된다.

2) 중심성의 측정

특성차원의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Lewicki가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Wishner(1967)가 제안한 간접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피험자에게 대인 평가에 있어서 여러 특성차원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 영향받기 쉽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들(예를 들면, 지적이다, 정직하다 등)의 대인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피험자에게 평가하라고 할 경우 개인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 최고의 중요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ishner는 Asch의 중심성(centrality)은 한 차원이 나머지 다른 차원에 대해 맺고 있는 상관계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ishner는 Asch가 인상형성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왜 중심적이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이 중심적이 되는 조건을 연구하였다. Asch의 연구에서 우리는 특성목록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있더라도 최종적 인상형성을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어떤 특성이 '중심적(central)' 혹은 '주변적(peripheral)'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만 실험결과로 부

터 사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Wishner는 Asch가 중심특성으로 찾아낸 '따뜻한-차가운(warm-cold)' 차원이 반응특성 (피험자들이 주어진 자극 특성에 근거해서 추론하게 되는 가상적 인물의 특성 목록)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이 차원들은 틀림없이 반응특성들과 높은 상관을 맺고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Wishner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피험자에게 Asch가 사용한 53개의 특성차원에서 자극인물을 평가하게 한 다음 이들 특성간의 상관을 측정할 실험에서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Asch의 실험에서 '따뜻한' 자극인물은 '차가운' 자극인물에 비해 더 '상상력이 풍부한(imaginative)'것으로 평가되었는데 Wishner는 '따뜻한'과 '상상력이 풍부한'간에 .48의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Asch의 실험에서 '따뜻한'사람과 '차가운'사람은 똑같이 '강한(strong)'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강한'과 '따뜻한'간에는 아무런 상관이(.07) 없었다. 이것은 '따뜻한'과 '차가운'차원이 '강한'특성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차원이 변화하더라도 '강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극 특성을 '지적인-지적이지 않은'으로 하여 반응 특성 목록을 이것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구성된 실험의 결과는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차원의 변화는 인상형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특성의 중심성은 그것이 반응특성과 맺고있는 상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차원의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Wishner의 중심성 개념에 근거하여 한 특성차원과 나머지 다른 특성차원간의 상관의 정도로 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즉, 중심성은 한 특성 차원과 나머지 16개의 각 특성 간에 r^2 을 합산함으로써 한 특성차원이 나머지 특성차원을 설명해주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3) 자기평가-중심성 간의 관계

자기평가 항목에서 평가된 각 특성차원의 긍정성을 X축에, 각 차원의 중심성을 Y축에 두어 이들의 분산도를 통해 이들간의 관계의 모양을 살펴보고 또한 상관을 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가한 132명중 불성실 응답자, 가벼운 우울, 그리고 BDI점수와 '자기자신' 항목이 불일치하는

<표 1> 비우울 집단과 우울 집단간의 BDI점수 비교

	비우울 집단	우울 집단
점수범위	1-9	16-28
점수평균	5.42	19.64
표준편차	2.58	4.13
사례수	30	30

사례를 제외하여 비우울 집단 30명, 우울 집단 30명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한 BDI점수를 보면 전체 평균이 14.15(SD=7.21)이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우울 집단과 우울 집단의 우울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특성차원의 긍정성과 중심성에 관한 지표를 얻기위해 14명의 자극인물을 17개의 특성차원에서 평가하게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에 속하는 60명의 피험자 각각의 특성 차원의 긍정성과 중심성간의 분산도를 검토해 본 결과 그들간의 관계는 직선적 함수가 가장 적절한 근사치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 두집단에 속하는 각 개인들의 긍정성과 중심성간의 상관값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울 수준이 상이한 두 조건의 각 개인들은 몇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비우

<표 2> 개인별 긍정성과 중심성 간의 상관계수

	비우울 집단			우울 집단		
.65*	.42	.16	-.68*	-.51*	-.19	
.58*	.26	.59*	-.31	-.33	-.37	
.56*	.37	.25	-.53*	-.16	-.22	
.44*	.24	.29	-.43	-.10	-.80*	
.11	.35	.57*	-.79*	-.31	-.53*	
.16	.53*	-.18	-.39	-.14	-.36	
.22	.45*	-.27	-.54*	-.47*	.35	
.10	.36	-.38	-.26	-.11	.12	
.20	.43	-.24	-.82*	-.52*	.33	
.31	.34	-.24	-.11	-.34	.17	
평 균	.35*(N=25)			-.41*(N=26)		
범 위	.11~.65			-.10~- .82		

* : p<.05

울 집단에서 5명, 우울 집단에서 4명) 명백히 대조적으로 비우울 집단에서는 정적인 상관값이, 우울 집단에서는 부적인 상관값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은 비우울 집단에서 8사례, 우울 집단에서 10사례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례수(14)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대조적인 지각 경향성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 각 개인의 r 을 z 점수로 환산한 다음 두 집단의 평균 상관값을 계산했을 때 비우울 집단의 평균 상관값은 .35였고 우울 집단은 -.41이었는데 이들 값은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과 우울한 사람간에 Lewicki가 제안한 자기상 편과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 2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즉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어떤 특성 차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대인 지각에 있어서의 중심성은 증대되어 이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반면에,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특성 차원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그 차원의 중심성은 증대되어 이들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논 의

Asch(1946)는 그의 인상형성에 관한 고전적 연구에서 인상형성을 조직화하는 지각자에 의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중심특성(central trait)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밝혀낸 중심특성은 '따뜻한-차가운(warm-cold)' 차원이었는데 이것은 자극대상의 여러 주변적 특성들의 의미를 이 중심특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변화시켜 대상에 대한 일관된 인상형성을 조직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Wishner(1967)는 Asch의 연구에서 어떤 특성이 중심성이 되는가 하는 중심특성의 예언의 문제를 그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중심특성을 반응특성(자극인물을 기술한 자극특성으로부터 피험자가 그에 대해 추론해 낸 특성 목록)에 관한 사전 정보에 의해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Asch의 실험에서 어떤 가상적 인물을 기술하고 있는 '따뜻한' 특성이 '차가운' 특성으로 변화했을 때 피험자들이 반응특성의 선택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주어진 반응특성들이 '따뜻한-차가운' 차원과 높은 상관을 맺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다. Wishner는 자극특성과 반응특성 목록간의 상관의 정도로 어떤 특성이 '중심적' 혹은 '주변적' 특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었다. 중심특성에 대한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것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가능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ishner의 중심성 개념에 근거하여, 자기상에 의해 영향받는 특성 차원의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 특성 차원과 나머지 16개의 각 특성간에 r^2 을 합산함으로써 한 특성차원이 나머지 특성차원을 설명해주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Asch가 제안한 이 중심특성은 어떤 특정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 중심특성 이외에도 개인의 관심, 가치, 욕구, 목표, 상황 등에 따라 타인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주목하는 개인적 중심특성들을 갖고 있다(조공호, 1982; Lewicki, 1983).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은 대인지각에서 개인차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대상에 대해서도 상이한 인상형성과 평가가 가능해 진다.

한편, Lewicki(1983)는 자아(self)는 좋은 자기상(self-image)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Markus, 1980),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중 긍정적인 측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연구(Shrauger & Patterson, 1974)에 근거하여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자아측면은 타인을 지각할 때도 부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자기상 편과(self-image bias)'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wicki가 제안한 대인지각에 있어서 '자아상 편과' 가설에 개인차 변인으로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Lewicki는 자신의 피험자를 우울과 비우울로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그의 가설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DI를 사용하여 피험자를 우울과 비우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비우울 집단과 우울 집단간에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예언한대로 서로 상반된 지각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우울 집단

에 속하는 각 개인은 여러 특성차원의 중심성과 긍정성 간에 정적인 상관(평균 상관값: $r=.35$)이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Lewicki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우울 집단에 속하는 각 개인은 여러 특성차원의 중심성과 긍정성간에 부적 상관(평균 상관값: $r=-.41$)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울한 사람들의 이와같은 지각경향성은 Lewicki의 자기상 편파 가설과 현상적으로 볼 때 정반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울집단의 상반된 지각 경향성도 Lewicki가 자기상 편파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인지적 설명모델로 설명 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자아상 편파' 가설이 일어나는 이유로 방어기제와 인지적 기제의 작용을 가정하였다. 방어기제에 의한 설명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존중감을 유지, 고양하기 위해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고 부정적 측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 특성은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아상편파에 관한 새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는 이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앞에서 소개한 실험절차(20명의 자극인물을 25개의 특성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를 1주일의 간격을 두고 두번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이 두번째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그들의 반수에게는 중립적 정보를, 나머지 반에게는 긍정적 평가를 제공하였다. 실험결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집단이 더 강한 자아상 편파 현상을 보였다. 이 현상은 방어기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피험자들은 방어기제가 약화되든지, 적어도 일정해야만 하고 따라서 긍정성과 중심성간의 관계는 약화되거나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Lewicki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기제'의 작용을 제안하였다. 그가 새롭게 제안한 이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자아상은 외적, 평가적 자극을 매개한다. 사람들이 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어떤 특성차원이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는 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기제에 의한 설명은 그의 새로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설로 제시된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이 중심 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가설은 현상적으로 볼 때 Lewicki의 자아상편파 가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예언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의 자아상 편파 가설을 설명하는 인지적 설명과 내적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우울에 대한 행동적 접근(Lewinsohn, 1982)에서는 우울의 발생을 사회적 행동 그 자체와 그에 대한 강화유형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고 긍정적 강화가 결여되므로, 그 결과로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우울에 대한 행동적 접근과 Lewicki의 인지적 기제에 의한 설명을 결합하면 본 연구에서 보여준 우울한 사람들의 긍정성과 중심성 간의 부적 상관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주위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어떤 특성차원이 타인들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이 Lewicki가 제안한 자아상 편파 가설과는 정반대의 지각 경향성을 보인 것 역시 그의 설명논리에 의해 설명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wicki의 자기상 편파 가설에 대한 인지적 설명모형을 더욱 확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Lewicki가 보고한 연구 결과에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즉, 본 실험 결과의 논리에 근거해 볼 때 그가 보고한 실험 결과(80명의 피험자 모두가 정적인 상관을 보여 준 것)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실험에 참가한 80명의 피험자 중에는 우연히도 단 한명의 우울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 중에서 비우울과 우울의 비율은 각각 55%와 45%이었는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실험에 참가한 80명의 피험자중 단 한명의 부적 상관을 보인 피험자가 없었다는(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울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 보고는 이러한 이유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우울 집단에 속하는 30명의 피험자중 5명은 자신의 집단의 전체적인 지각 경향성과는 달리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또한 우울 집단에서는 4명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집단의 전체적인 지각 경향성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피험자가 나타난 이유로는 총 238번의 평가를 해야하는 평가 과정의 지루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험자들의 응답의 불성실함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면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 첫 인상형성(first impression formation) 과정에도 적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 인상형성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본 연구에서 자극단서로 사용한 14명의 대상은 이미 피험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피험자가 평가 대상인물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실험상황에서 알게되는 방식의 실험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추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명권(1984). 생활 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공호(1982a). 대인 평가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 호오성과 화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공호(1986). 대인 평가특성의 분화 : 발달적 전망. *사회심리학연구*, 3-1(통권 5호).
 Asch, S.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Anderson, N.H. (1965). Averaging v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Beck, A.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Beck, A.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radley, G.W.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re examination of the fact of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6-71.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N. Y.: Academic Press.
 Campbell, J.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Fiske, S.T. & Taylor, S.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
 Gotlib, I.H. (1981). Self-reinforcement and recall: Differential deficit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521-530.
 Hamilton, D.L. & Falloot, R.D. (1974). Information salience as a weighting factor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649-654.
 Jones, E.E. & Davis, K.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N.Y.: Academic Press.
 Kelly, G.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Krauss, R.M., Apple, W., Morency, N., Wenzel, C., & Winton, W. (1981). Verb al, vocal, and visual factors in judgments of another's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12-320.
 Kuiper, N.A. (1981). Convergent evidence for the self as a prototype: The "inverted-U RT effect" for self and other judge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438-443.
 Langer, E.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

- 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ewicki, P. (1983). Self-image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84-393.
- Malloy, T.E. & Albright, L.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19-428.
- Markus, H. (1980) The self in thought and memory. In D. M. Wegner & R. R. Vallacher (Eds.),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 Zajonc, R. B.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1., N. Y. : Random House.
- Nisbett, R.E., & Wilson, T.D. (1977). The halo effect : Evidence for unconscious alteration of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250-256(a).
-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s :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7, No. 4 (Part 2, Whole No. 644), 1-18.
- Rehm, L.P. (1977). A self-control model of depression. *Behaviour therapy*, 8, 787-804.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83-294.
- Schneider, D.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04-309.
- Schneider, D.J., Hastorf, A.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Sears, D.O., Freedman, J.L., & Peplau, L.A. (1985).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Shrauger, J.S., & Patterson, M.B. (1974). Self evaluation and selection of dimensions for evaluation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42, 569-585.
- Tagiuri, R. (1969). Person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Vol. 3.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Taylor, S.E. & Fiske, S.T. (1978). Salience, attention, and attribution : Top of the head phenomena.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N. Y. : Academic Press.
- Wishner, J. (1960). Reanalysis of "impres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67, 96-112.

Effects of Self-Image and Depression on Person Perception

Seong-Yeol Han and Il-Ho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Lewicki's self-image bias in person perception. Beck Depression scale (BDI)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and depressed and non-depressed groups were sorted. And subjects were asked to rate frankly fourteen target-persons on according to seventeen trait-dimensions. Having established the subject's self-ratings representing positivity of his or her location on each dimension and each dimension's centrality measure, I determined self-ratings-centrality relation separately for each subjec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itivity of self ratings and centrality in non-depression group and a negative correlation in depression group.